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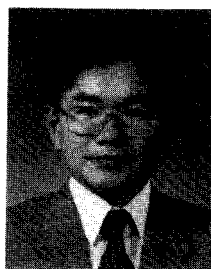
다당류 소재

특집 기획 류 동 일

고분자과학과 기술지 97년 10월호(제5호) 특집 주제로서 '다당류 소재'가 선택되었다. 다당류 소재는 본지의 특집 기획이 합성 고분자 재료에 치우쳐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약간 과격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학문적인 경계가 점차 희미하여지고 인접학문 분야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 의미있는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흔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당류 소재가 인류 역사와 오랫동안 함께 한 진부한 재료라는 인식을 갖기 쉽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재료에 기초한 새로운 물질이 창출될 수 없듯이 천연 재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천연을 뛰어넘는 우수한 합성 재료를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라고 본다. 생물공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다당류가 고분자공학과 생물공학의 경계를 잇는 천연 고분자 재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당류 소재를 본격적인 고분자 재료로 취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학술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재료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다당류 소재가 최근 연구의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세부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점은 본인이 편집진에 참여하게 된 내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본인은 지난 94년 9월부터 97년 8월말까지 3년동안 한국과학재단 지원하에 '셀룰로오스 연구회'라는 중점과제 연구회를 진행하였으며 그 진행 과정에 국내 연구 인력 및 연구 흐름에 대한 약간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황승상 박사께서 연초에 본지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대개의 세부 주제는 당시 셀룰로오스 연구회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발표자들에게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다. 선택된 세부 주제들은 시사성이 강조된 것도 있고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포함시킨 것도 있다. 전체적인 골격으로 볼 때 군데군데 빈 부분이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특히 셀룰로오스, 키틴/키토산 재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당류 일반에 대한 소개가 미흡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 그밖에 중요한 주제 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본인의 역량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채삼 감사를 드린다.



류동일

1975~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공학사)
1980
1980~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1982 (공학석사)
1983~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1987 (공학박사)
1986~ 전남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
현재